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6.01.07, 한-EU연구협력센터>

○ EU 이사회 키프로스 의장국 주요 의제(1.5)

- 2026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키프로스는 호라이즌 유럽 협상 진전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 혁신 격차 축소, 차기 EU 예산 합의 도출, ECF 설계 논의, 차기 에라스무스+ 설계 논의 등도 주요 의제로 제안
- 전반적 우선 과제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파트너십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EU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임

○ 유럽, 대규모 언어모델 대체 AI 기술에 투자(1.6)

- 유럽은 LLM의 한계를 넘어 물리 세계를 추론하는 차세대 AI로 미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노리고 있으나, 생성형 AI에 쏟린 투자 방향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전문가들은 LLM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다양한 형태의 AI를 혼합 지원할 것을 강조
- 여러 펀딩 기관들도 LLM 대안 연구를 지원. 대표적으로 독일 Sprind는 세계적 프런티어 AI 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1억 2,500만 유로의 경쟁형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 영국 ARIA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컴퓨팅 방식으로 AI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출범
- EU는 하향식 펀딩으로도 LLM 대안 연구 지원. Thirdwave 컨소시엄은 LLM과 신경-상징 AI를 결합해 신뢰성·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진행

○ 호라이즌 유럽 2025년 통계(1.6)

- 최근 공모 지연과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제안서 폭증으로 인해 공모 성공률 하락 추세('22~'24년 매년 2%p씩 감소(18%→14%), '25년 잠정 성공률 14% 수준)
- 제품·서비스의 시제품 제작·테스트·실증·시범운영을 지원하는 혁신 프로젝트(IA) 비중이 2022년 24%에서 2025년 37%로 증가
- 독일 수혜액이 '25년 12억 유로로 1위(전체 자금의 15%) 유지, '24년 재가입한 영국이 2위에 올랐으며(10%), 필라1에서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성과가 두드러짐

- (기타) ▲연구계, 새로운 호라이즌 유럽 정책 방향 환영 ... 그러나 낮은 성공률·평가 부담에 대한 우려 지속(1.6) ▲유럽, 신규 연구 데이터 공간을 통해 AI 교육·연구용 고품질 데이터 통합 가속화(1.6)